

6년만의 아시아 겨울축제... 한국 종합 2위 노린다



19일 日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개막... 봅슬레이·스켈레톤 등 썰매 제의 한국 빙속 이상화 등 금 15개 목표... 호주·뉴질랜드 첫 출전·북한도 참가

아시아인의 겨울 축제인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이 19일 막을 올린다. 2011년 카자흐스탄 알마티 대회 이후 6년 만에 열리는 동계아시안게임은 19일부터 26일까지 일본 최북단 삿포로에서 열전을 펼친다. 이번 대회에는 빙상과 스키,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컬링 등 5개 종목에 총 금메달 64개가 걸려 있다. 우리나라가 최근 강세를 보이는 봅슬레이·스켈레톤 등 썰매 종목은 열리지 않는다. 금메달 15개를 따내 종합 2위에 오르려는 목표를 세운 한국은 이번 대회에 선수 142명과 임원 78명 등 총 220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선수단장은 김상환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이 맡았다. 동계아시안게임은 1986년 삿포로에서 제1회 대회가 열렸다. 삿포로는 1, 2회 대회를 연달아 개최한 뒤 이번이 세 번째로

동계아시안게임을 열게 됐다. 이번 대회까지 총 8차례 동계아시안게임 가운데 세 번이나 대회를 여는 삿포로는 1972년에는 동계올림픽을 열기도 했던 아시아 동계 스포츠의 중심지다. 동계아시안게임은 원래 4년에 한 번 열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시아올림픽평의회가 동계올림픽 개최 1년 전에 동계아시안게임을 열기로 함에 따라 이번에는 6년 만에 동계아시안게임 성화가 타오르게 됐다. 이번 대회 슬로건은 '겨울의 감동을 공유하고 더 큰 꿈을 향해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의 'Beyond your ambitions', 마스코트는 붉은 머플러를 두르고 푸른 망토로 몸을 감싼 하늘다람쥐 '에조몬'이다. 이번 대회에는 31개 나라에서 1100명 정도의 선수가 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호주와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국가도 처음 출전한다. 이 두 나라는 개인 종목에 초청 선수 자격으로 나오며 메달을 가져갈 수는 없다.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 투르크메니스탄, 베트남, 스리랑카 등은 동계아시안게임에 처음으로 선수를 파견한다. 참가 여부가 불투명했던 북한도 이번 대회에 나온다. 일본 정부가 핵 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독자 제재로 북한 국적자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대회 참가 여부가 확실치 않았으나 국제스포츠계 관례에 따라 출전이 최종 허용됐다. 북한은 스피드 스케이팅,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팅 등의 종목에 선수 7명을 출전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알마티 대회에서 금메달 13개로 종합 3위에 오른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는 금메달 15개로 2위를 차지한다는 목표다. 우리나라가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종합 2위에 오른 것은 1999년 강원 대회(금메달 11개), 2003년 일본 아오모리 대회(금메달 10개) 등 두 차례가 있었다.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 출전하는 이상화를 비롯해 이은훈, 김보름, 여자 쇼

역대 동계아시안게임 성적

개최지(개최년도)	한국 순위(금/은/동)
1회 일본 삿포로(1986)	3위(1 5 13)
2회 일본 삿포로(1990)	3위(6 7 8)
3회 중국 하얼빈(1996)	4위(8 10 8)
4회 한국 강원(1999)	2위(11 10 14)
5회 일본 아오모리(2003)	2위(10 8 10)
6회 중국 장춘(2007)	3위(9 13 11)
7회 카자흐스탄 알마티(2011)	3위(13 12 13)

제 8회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 개최지: 일본 삿포로(17.2.19~26)
- 종목: 5개(바이애슬론, 빙상, 스키, 컬링, 아이스하키) 총 64개 금메달
- 출전국가: 31개국(약 1,100명 선수 출전)
- 한국 선수단: 220명(선수 142명, 임원 78명)
- 목표 순위: 종합 2위(금메달 15개)

자료/ 대한체육회 **연합뉴스**

트랙의 심석희, 최민정 등이 금메달 후보로 손꼽힌다. 또 스노보드 이상호, 크로스컨트리 김마그너스와 이재원 등도 '실용 위 금빛 퍼레이드'를 꿈꾼다. 백지선 감독이 이끄는 남자 아이스하키도 일본, 카자

KIA 타이거즈 캠프 시계 빨라진다

11일 홍백전·14일 연습경기

KIA 타이거즈의 캠프 시계가 빨라진다. KIA 스프링캠프 선수단은 지난 31일 일본 오키나와에 집을 풀었다. 바로 다음 날인 1일부터 훈련을 진행한 선수단은 4일까지 강도 높은 훈련을 한 뒤야 5일 캠프에서의 첫 휴식일을 보냈다. 캠프는 '3일 훈련 1일 휴식'으로 진행되지만, 첫 텀 만에 4일 휴식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후 정상적으로 3일 훈련 일정으로 캠프가 운영되면서 선수단은 9일 휴식일을 보낸다. 투수들의 라이브 피칭이 순차적으로 전개되면서 빠르게 두 번째 훈련 일정이 지난 가운데 캠프의 시계는 더 빨라지게 된다. 세 번째 텀에는 자체 홍백전이 그리고 네 번째 텀부터는 연습경기가 시작되면서 캠프는 본격적으로 오르게 된다. 본격적인 경쟁체제가 가동되면서 라인업 구성과 선수 기용 등을 놓고 벤치의 올 시즌 구상도 엿볼 수 있게 된다. 홍백전은 예정보다 하루 미뤄 11일 치르고, 생존경쟁의 신호탄인 연습경기는 14일 아쿠르트 원정으로 시작된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일정을 앞둔 임창용, 최형우, 양현종도 바쁘다. 대회 준비를 위해 예년보다 빠르게 몸을 끌어올리고 있는 세 사람은 11일까지 팀 훈련에 참여한 뒤 WBC 대표팀이 오키나와로 건너오는 12일 캠프를 옮기게 된다. 이후 세 사람은 한국대표팀 소속으로 대표팀 일정에 맞춰 움직이게 된다. KIA 퓨처스 선수단은 9일 오후 인천 공방을 통해 캠프가 마련된 대만으로 출국하는 등 '호랑이 군단'의 2017 시즌 준비가 가시화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8일 오후 서울 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쇼트트랙 아시안게임 출전선수 미디어데이가 열렸다. 기자회견 뒤 실내빙상장에서 열린 공개훈련에서 최민정(왼쪽)을 비롯한 선수들이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쇼트트랙 태극낭자 “아시안게임 전종목 석권 목표”

남자 대표팀도 “최소 금 2” 세계 최강전력을 자랑하는 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오는 19일 개막하는 2017년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전종목 석권을 목표로 내세웠다. 최근 부진에 빠진 남자대표팀도 삿포로 무대에서 최소 2개 이상의 금메달을 노린다.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은 8일 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아시안게임 개막을 앞두고 미디어데이를 열어 “팀 분위기는

말할 수 없이 좋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조재범 여자대표팀 코치는 아시안게임 목표를 묻는 말에 “전 종목(500m·1,000m, 1,500m, 계주) 석권이다. 전 종목 우승을 위해 한 종목에 치우치지 않고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코치는 “아시안게임을 준비하지만, 세계적인 포커스는 역시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며 “아시안게임은 올림픽의 전초전이다. 예전에는 장거리 종목 훈련에 치중했지만, 지금은 500m를 포함해 아시안

게임에서 전 종목 우승을 하려고 훈련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번 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시리즈에서도 최고의 기량을 과시하는 여자대표팀은 무엇보다 끈끈한 팀워크가 장점이다. 여자대표팀 주장 심석희(한국체대)는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이 좋다. 대표팀에 처음 들어온 선수들도 처음에는 적응에 애를 먹었는데 지금은 기량이 향상돼 기존 대표팀 선수들과 호흡이 잘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석희와 ‘쌍두마차’를 이루는 최민정 역시 “아무래도 월드컵 시리즈에서 성적이 좋다 보니 팀 분위기도 향상됐다. 서로 의욕적으로 잘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코치 역시 “월드컵 1~4차 대회를 치르는 동안 성적이 좋아서 팀 분위기도 최고다. 4차 월드컵 이후 자체 연습대회를 많이 치르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승승장구하는 여자대표팀에 비해 2010

알마티 동계U대회 쇼트트랙 금 3 추가 한국 종합 3위 유지

제28회 알마티 동계유니버시아드에 참가한 한국 선수단이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3개를 추가하며 종합 3위 자리를 유지했다. 손하경(한국체대)은 7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대회 10일째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에서 1분33초858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출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날 1,500m에서 우승한 손하경은 1,000m에서도 정상에 올라 개인 종목에서 2개의 금메달을 따내는 활약을 펼쳤다. 손하경은 여자 3,000m 계주에서도 김지희, 김아람, 노도희(이상 한국체대)와 출전한 4분13초630으로 중국(4분13초808)을 0.178초 차로 따돌리고 한국 여자대표팀이 우승하는 데 힘을 보태면서 대회 3관왕이 됐다. 남자 대표팀의 임경원(화성시청)도 금메달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임경원은 남자 1,000m 결승에서 1분28초024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냈다. 함께 출전한 박지원(단국대)은 1분28초051을 작성하며 은메달을 차지했다. 금메달 3개를 추가한 한국은 금메달 11개, 은메달 5개, 동메달 5개를 쌓아 2위 카자흐스탄(금메달 11개·은메달 7개·동메달 16개)과 금메달 수는 같았지만 은메달 수가 부족해 3위를 유지했다. 러시아는 금메달 27개, 은메달 26개, 동메달 15개로 선두 질주를 이어갔다. /연합뉴스



박성현, LPGA 데뷔전 미룰 수 없다

미국 전훈 중...내달 2일 싱가포르 HSBC 위민스 챔피언스 출전 강행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특급 신인 박성현이 미뤄던 데뷔전을 싱가포르에서 치른다. 박성현은 다음 달 2일 싱가포르 센토사 골프장 탄중 코스(파72)에서 열리는 HSBC 위민스 챔피언스에 출전하기로 했다. 박성현은 데뷔전을 두 차례나 미뤘다. 1월 말 LPGA투어 개막전인 퓨어실크 바

하마 클래식을 데뷔전으로 잡았지만 미국 정착과 캐디, 코치 계약 등으로 훈련 진행이 다소 늦어지자 2월 말 혼다 타이틀랜드로 데뷔전을 늦췄다. 하지만 신인은 출전 자격이 없는 혼다 타이틀랜드는 초청을 받지 못해 출전이 무산됐다. 초청 불발로 혼다 타이틀랜드와 이어지는 HSBC 위민스 챔피언스를 묶어 동남아시아

원정 2연전을 치르려는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따라 아예 3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시작하는 벅크 오브 호프 파운데이션을 데뷔전으로 삼는다는 계획도 검토했다. 며칠 고민한 박성현 캠프는 HSBC 위민스 챔피언스 출전을 강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싱가포르 원정을 결심한 또 하나의 이유는 스폰서 계약이다. 메인 스폰서 계약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이달이 가기 전에 조인식을 열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로 가는 길에 한국에 들려 메인 스폰서 조인식을 여는 일정이 거의 확정적이다. 또 이참에 서브 스폰서 업체와 미뤄뒀던 조인식도 한꺼번에 치르려는 복안이 다. /연합뉴스